

Vol.

73

2022년 11월

해사정책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은 해양환경, 해사법률, 해사정책, 해사안전, 전략계획 등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발간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총 괄 박한선 실장
- 감 수 이연경 연구위원
- 발행인 김종덕 원장
- 발행처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해사산업연구실
-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TEL. 051-797-4800
- FAX. 051-797-4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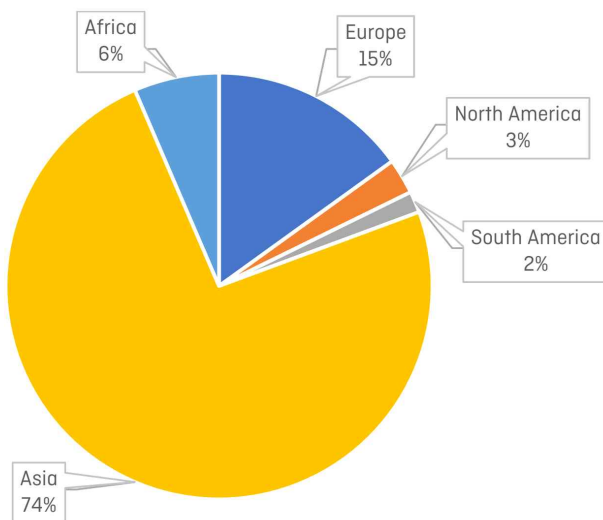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MZ세대 관점에서 해사산업의 지속가능성은 다양성과 포용성에 달려 있어

■ 미래 해사산업을 이끌어 갈 MZ세대 해사 리더들은 다양성, 유연성, 목적 및 가치, 전문성, 포용성과 근무환경을 해결과제로 제안함

- ▶ 세계해사포럼은 2022년 8월 세계 해사산업에 종사하는 MZ세대를 대상으로 ‘해사산업의 인적자원 유지 방안과 2030년 이전에 해결이 필요한 도전과제’에 대한 수필 대회 결과를 발표함^{a)}
 - 수필을 제출한 총 27개국 출신의 해사 전문가(육상 및 해상활동 모두 포함) 188명은 아시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74%), 나머지 유럽(15%), 아프리카(6%), 북아메리카(3%), 남아메리카(2%) 출신이었음
 - * 아시아는 대부분 인도(104명), 필리핀(19명), 그리스(11명)였으며, 전체 중 여성은 32명, 남성은 156명 차지

〈그림 1〉 2022 수필대회 지원자들의 지리적 분포



〈그림 2〉 세계해사포럼에 참석한 미래 해사리더 국적



자료 : 국제해사포럼, A youth perspective on Human Sustainability in the Maritime Industry: The change Gen Z and Millennials are asking for

- 내용은 크게 인적 지속가능성, 인적 복지와 권리, 미래 기술 및 경쟁력, 다양성, 평등과 포용, 인적 안전과 기타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해상에서의 인간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춤
- 따라서 MZ세대들이 생각하는 미래 해사산업이 갖추어야 할 6가지 요소는 다양성, 유연성, 목적 및 가치, 전문성, 포용성과 근무환경이며, 해사산업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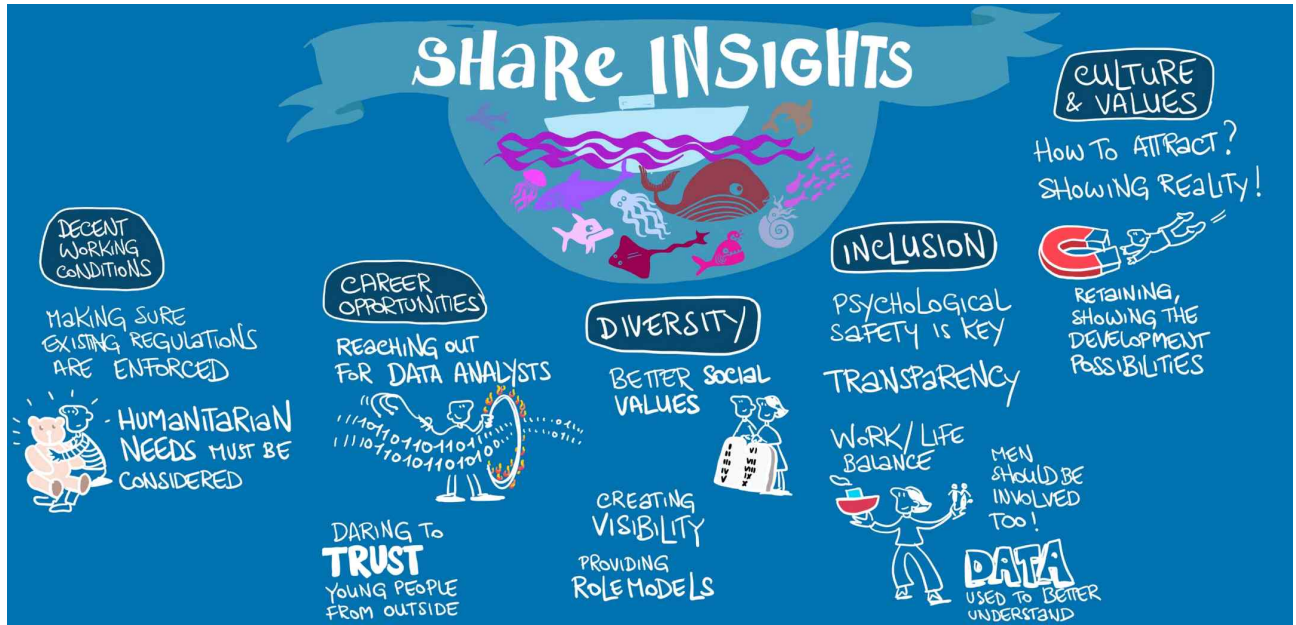
〈그림 3〉 세계해사포럼의 미래 해사리더 대상 수필대회 진행



자료 : 국제해사포럼, A youth perspective on Human Sustainability in the Maritime Industry: The change Gen Z and Millennials are asking for

- ▶ 젊은 해사분야 전문가들은 편견과 통제를 통한 이윤 추구에서 성별과 다른 경력의 전문가들을 포용함으로써 안전한 정신건강과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주장함^{a)}
 - (다양성) MZ세대와 더불어 전 세계 어린이들까지 인적자원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다가갈 것을 촉구하였으며,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편견을 줄이고 전략적으로 일할 것을 장려함
 - (유연성) 해사산업은 훨씬 더 넓은 범위 내에서 다른 삶과 다른 요구를 가진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술 개발, 지식 공유 및 향상된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여 개인의 권한을 강화해야 함
 - (목적 및 가치)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서 고려하여 젊은 해사산업 지도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요구사항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이윤보다는 가치 중심으로 변모해야 함
 - (전문경력) 데이터 분석, 신기술, 기술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상과 육상기반 직업 간 활발한 전환 기회, 노하우 공유와 학제 간 소통과 혁신을 장려하여 다른 산업의 젊은 인재에게 개방할 필요
 - (포용성) 성별 지급 불평등, 임신에 대한 편견 등 성별 포용성에 강하게 초점을 맞추어 여성과 남성 모두를 훈련을 촉구하면서, 안전한 정신 건강 유지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공정한 대우를 위한 행동위원회 설치, 포용성 지표(inclusion indicator) 개발과 미래 해사산업 창조에서 포용성 포함을 주장함
 - (근무환경) 육상휴가 부족,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 부족, 규정 미이행, 선원의 근로시간 데이터 보고를 위한 역량 부족을 지적하면서 법제도, 글로벌 프로그램, NGO 이니셔티브, 무료 플랫폼을 통해 선원과 고용주 인식 증대를 추천하고, 규제 미준수 시 선박 대신 업체에 대한 위약금 부과 및 투명한 평가 절차 구축 제안

〈그림 4〉 MZ세대 해사리더의 인사이트



자료 : 국제해사포럼, A youth perspective on Human Sustainability in the Maritime Industry: The change Gen Z and Millennials are asking for

■ 산업 부흥의 핵심 인력으로서 MZ세대와의 소통을 통한 해사산업 개선에 노력해야

➤ 해사산업의 부흥과 지속을 위해서는 ESG 원칙과 MZ세대에 대한 이해와 연결 필요 ^{b),c)}

- 맥킨지(McKinsey)의 'Women in the Workplace 2022' 보고서와 같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 리더에 대한 다양성, 유연성, 형평성, 복지가 여전히 부족하기에 산업계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음
- 지속가능한 해사산업은 번아웃 최소화, 공정한 승진과 보상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양성평등 로드맵을 통해 성평등에 대한 진전을 가속화할 수 있어야 실현가능함
- 산업계는 'ESG 경영'을 재무적 성과를 위한 기업 브랜드 이미 제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소통을 중시하는 MZ세대들의 생각을 ESG 철학과 연계하여 기업과 산업을 개선해나가는데 노력해야 함

김보람 전문연구원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해사산업연구실
(zzz3678@kmi.re.kr / 051-797-4640)

참고 자료

- a) GLOBAL MARITIME FORUM, A youth perspective on Human Sustainability in the Maritime Industry: The change Gen Z and Millennials are asking for (검색일: 2022.10.20.)
b) https://www.koreatimes.co.kr/www/opinion/2022/11/638_330720.html (검색일: 2022.11.6.)
c) <https://safety4sea.com/women-in-the-workplace-2022/> (검색일: 2022.11.6.)